4.13 선거 RUN · RUN · RUN

## 안호영 예비후보, 경선서 박민수 의원 제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예비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가 박민수 후보의 발목을 잡았다.

안호영 후보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더민주 결선 여론조사 결과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박민수 후보를 눌렀다.

박민수 의원은 전주 을 이상직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경선 탈락이라는 쓴 잔을 맛보게 됐다.

안 후보와 박 후보의 경선은 10%p 차이가 났다.

안호영 후보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 승리는 무능 국회 식물국회를 개혁하고, 민생테러 주범인 새누리당 정권을 2017년에는 반드시 심판하라는 완주진안무주장수의 당원들과 유권자들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또 그는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관해서 "각 캠프마다 선거운동 방식이 다르다보니 작은 오해와 불신이 문제가 됐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신 박민수 예비후보와 유희태 예비후보에게 먼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새로운 완주진안무주장수 유권자들에게 지역사회의 화합과 도시와 농촌, 사회경제적 약자 모두의 행복이 겹쳐지는 첩첩행복의 길을 제시하겠다. 총선 승리를 위해 유권자들과 소통 잘 하고 배려하는 안호영만의 장점을 활용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당당한 무결점 선거를 치르겠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 최형재 예비후보 "자치단체별 청년전담부 신설"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완산을 예비후보가 지난 16일 취업준비생 등 청년 10여명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자치단체별 청년전담부를 신설할 것을 약속했다.

최 예비후보는 3년째 취업을 준비하는 한 청년으로부터 "공당 공천을 받은 후보로서 청년들의 현실 인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자치단체별 청년전담부를 신설해 공공부문 일자리 34만 8,000개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패키지형 공공고용 서비스 제공 등을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새누리당을 이겨 민생경제를 살리고, 정권교체를 통해 지역발전을 꾀하자"고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당부했다. /고민형 기자

## 하정열 예비후보, 민생 · 국방안보 1차 공약 발표

제20대 총선 정읍·고창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열 예비후보가 "정직과 소신을 책임과 의무로 알고 살아온 삶의 신조로 새로운 정치판을 열겠다"는 각오와 함께 정읍·고창의 민생과 국방안보분야에 관한 1차 공약을 발표했다.

하 예비후보는 17일 현 정부 들어 더욱 더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민생과 고령화에 대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구상했던 어르신, 청년,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또 하 예비후보만의 최대 강점인 국방안보통일 분야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고령화 사회 어르신을 위해 제시된 공약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소득 하위 70% 어르신, 2018년까지 기초연금 30만원 차등없는 상향 조정 등이다.

또 민생파탄 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양질의 알찬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특수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의료클러스터 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대비와 대책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된 FTA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축산·수산인에 대해서도 나름의 대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관련 공약은 ▲고창 밭경지 정리사업 선도지구 지정 ▲FTA대비 농어촌 생태보존 직불금 도입 등이다.

하 예비후보는 자신의 최대 강점인 국방안보와 민족통일을 위한 비전으로 ▲남북평화협정체결 지원법 제정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 ▲전시작전통제권 완전 이양을 위한 지원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방안보와 더불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민간학술교류를 강조하고 있어 평화와 자주국방, 민족통일에 대한 전문가로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비전을 내놓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 문재인 "정청래, 제물 아니다… 디딤돌 될 것"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7일 공천에 탈락한 정청래 의원의 '백의종군' 선언에 대해 "쓰러진 것이 아니다"고 격려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정청래 의원이 어렵고 아픈 결정을 했다"며 이 같이 썼다. 그는 "(정 의원은) 제물이 아니다. 쓰러진 것도 아니다"며 "아픈 지지자들을 일으켜세우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정청래 의원은 "우리 당 승리를 위해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 당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며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이성주 기자

# 강동원 〈무소속〉 '명예회복' vs 박희승 〈더민주〉 '전략공천 프리미엄'

Report 제20대 총선 격전의 현장을 찾아 - ⑧남원임실순창

### 강 의원, 더민주 컷오프 반발
### 현역 이점 업고 '설욕전' 나서

### 더민주 인재영입 10호
### 박 예비후보 지지세 거세

### 국민의당, 허위사실 공표
### 경선 배제 문제 등 '진통'

당초 총 12명이 출사표를 던진 남원순창임실 선거구는 지난 3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했을만큼 경쟁률이 가장 높은 치열한 격전지다.

중앙당의 공천이 본격화되고 대결 윤곽이 어느 정도 구체화돼가고 있지만 높았던 경쟁률만큼이나 선거구도는 안갯속을 걷고 있다.

현역 의원인 강동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순창)이 컷오프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이 박희승 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장을 남원순창임실 지역 공천 확정함에 따라 강 예비후보의 '명예회복' 성공 여부와 더민주당의 '전략공천' 성공 여부가 관전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예비후보 3명이 허위 사실 공표 등을 빌미로 치열한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다.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무소속의 강 예비후보와 더민주당의 박희승 예비후보의 혈전에 대한 반사이익을 국민의당 예선전을 치루고 올라온 후보가 받을 경우 충분히 당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도 오가고 있다.

우선 지난 14일 더민주당의 컷오프에 반발, 소속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해 남원순창임실 지역의 선거 판세를 요동치게한 강 예비후보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국교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현역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 그는 지난 해 '2015 최우수 의정활동 공로대상'을 수상하고 2014년에는 의정활동 우수의원 등 7관왕을 차지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고 있기도 하다. 또한 강 예비후보의 컷오프 동정론이 지역내 확산 될 경우 '설욕전(?)'의 승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예측이다.

더민주당의 인재영입 10호로 단수 공천된 박 예비후보의 지지세도 거세다.

먼저 박 예비후보는 타 후보들에 비해 비교적 늦게 선거운동에 합류했지만 더민주당의 전략공천이라는 당 프리미엄을 안고 있다. 그는 수원지법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으로 울산지법 부장판사(2004~2005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2006~2007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008~2010년) 등을 지내는 등 법조계로부터 신망 받는 인물이다. 정가는 박 예비후보의 장점들을 바탕으로 지역의 지지세를 끌어 올린다면 당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관측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에서는 최근 김원종·이성호 예비후보가 이용호 예비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등을 빌미로 경선 배제를 주장하는 등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의당 예비후보들은 모두 서울대 출신에다가 앞선 후보들에 비해 인물론면에서 절대 뒤쳐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이런 진통을 이기고 경선에 승리해 국민의당 지지표를 밀집할 경우 남원순창임실에서 국민의당 1석 추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김용호 변호사는 '역동적인 남원순창임실' 만들기를 목표로 의미 있는 도전에 나섰다. 그는 재단법인 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서 감사를 지낸 바 있다.

이밖에 국민희망시대 대변인을 역임한 민주당 임종천 예비후보가 넘치는 파이팅으로 선거이변을 꿈꾸고 있으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방경채 흥조건설 대표와 노병만씨 등이 있다.

정가 한 관계자는 "현역의원인 강 예비후보의 지지도와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당 지지율이 이번 남원순창임실 선거결과의 가장 큰 변수"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야권연대 독자출마" 박원석 의원 등 정의당 20대 총선 경기도당 예비후보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야권연대 독자 출마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19일 재보선 후보자 선출대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직)는 19일 오전 10시 익산실내체육관에서 4.13재보궐선거 익산시장·광역의원 익산시 제4선거구 후보자 선출대회를 갖는다.

이날 행사는 이상직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회선언과 대회사를 시작으로 최규성·김춘진 도당위원장 인사말, 후보자 합동연설회, 투·개표, 선출자 소감 발표로 이어진다.

익산시장에는 강팔문, 황호열 후보가 광역의원에는 김형화, 김용인, 최영규 후보가 나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후보자 합동연설회는 시장 후보는 각 10분, 광역의원 후보는 각 8분으로 진행된다.

연설회가 끝나면 오전11시부터 오후4시까지 권리당원 현장투표가 실시된다.

당선자는 이날 현장에서 실시되는 권리당원 현장투표 결과 30%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국민 여론조사 결과 70%을 합산해 결정한다. /신광영 기자

## 김무성 "사과안한다… 그러나 공천의결은 하겠다"

### 새누리 최고위원회서 이한구 공천 비난 공식 사과 요구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가 자신의 '이한구 공천 비난 기자회견'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오늘 최고위를 취소한 것은 어제 발표된 바와 같이 경선에서 결정된 사람이 6명밖에 안된다. 오늘 경선결과도 많이 나와서 한꺼번에 할 예정이다. 그거 때문에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공천결과에 불만이 있어 최고위 소집을 거부하며 공천 의결을 지연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18일 최고위를 소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해야지. 경선 결과가 이제 계속 나오니까 그때 그때 빨리 최고위에서 확정해줘야 그 지역이 안정된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자신을 제외한 최고위 간담회를 강행한 데 대해서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간담회하는 걸 내가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그러면서도 '사전에 연락이 왔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공천 항의의 표시로 이날 오전 최고위 개최를 거부했지만, 친박계 맏형 서청원 최고위원을 비롯해 원유철 원내대표, 이인제 최고위원,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최고위 간담회를 개최했다.

형식은 간담회지만 사실상 김무성 대표만 빼고 개최하는 일종의 비상 최고위원회인 셈이다. 김 대표와 가까운 김을동 최고위원만 참여하지 않았다. /이성주 기자

출생년도 각각 1년차… 고교 동문… 직업도 변호사… 지금은 경쟁중

## 완주무진장 예비후보들 "인연치곤 참…"

〈김정호·박민수·안호영〉

제20대 총선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는 선거구는 '완주진안무주장수'다.

그 중심에는 국민의당 김정호(52), 더불어민주당 박민수(51), 안호영(50) 예비후보가 있다.

공교롭게도 같은 선거구에서 경쟁하는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후보들이 모두 고교 동문으로 전라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학연뿐 만아니라 출생연도가 1년씩 차이나 상황에 따라 같이 학교에 다녔을 수도 있다는 점.

또 직업이 모두 변호사라는 데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안호영 예비후보는 19대에서도 박민수 예비후보와 공천권을 놓고 한바탕 경쟁을 펼친바 있어 긴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모바일과 현장 투표로 진행된 경선에서 안 후보는 5,571표를 얻어 5,894표를 얻은 박 후보에게 석패했었다.

박 후보는 19대 진안무주장수임실에서 5만7,893표 중 2만7,882표(49.35%)를 얻어 무소속 이명노 후보를 제쳤다.

하지만 이번 경선에서는 안 후보가 박 후보를 이기며 반대 상황이 됐다.

안 후보가 과거 경선과 달리 더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게 효과가 있었다는 지역 정가 관측통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에 이번 경선에서 승리를 거둔 안 후보도 이번 여세를 몰아갈지 관건이다.

김정호 예비후보가 국민의당 경선에서 승리, 공천을 확정할 경우 안 후보와의 선후배간 빅 매치가 또 다시 펼쳐지게 된다.

총선이라는 특수한 시기 덕분인지 다양한 인연으로 엮인 이들이 총선 후엔 과연 얼마나 달라질 것인지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다. /신광영 기자

## 무소속 출마자 선거권자추천부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 출마 하는 사람은 입후보환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9일부터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한다.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은 공휴일에도 가능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국회의원선거와 익산시장 재보궐선거는 300~500명 이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전라북도의원선거(전주시제2선거구, 익산시제4선거구)는 100~200명 이하, 전주시의원선거(전주시라선거구)는 50~100명 이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은 후보자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추천을 받기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단순히 소개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선거구선관위로부터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받아야 할 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할 수 있으며(손도장은 허용되지 아니함) 2명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의 후보자등록기간은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이며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3월 31일부터 시작된다. /신광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